

## 김정한 소설의 묘사적 어휘 연구

김 봉 모\*

### 차 례

- |            |                  |
|------------|------------------|
| I. 서론      | 3. 말맛 형용사        |
| II. 본론     | 4. 기타 형용사        |
| 1. 접미파생 어휘 | 5. 인간 특성 지칭어(별명) |
| 2. 다양한 의태어 | III. 결론          |

### I. 서론

1.1. 부산이 낳은 소설가 요산 김정한(1908~1996) 선생은 사실주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주의 작가이되, 김정한이 방관자의 입장에서 삶의 외피를 실증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친 것은 아니다. 평소 그는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였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엔 관심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김정한 소설은 억압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 과정에서 파악하고, 그들의 고통을 자기화하면서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었다고 말해진다. 이런 이유에서, 김병걸(1972:113)은 요산의 소설을 “가장

\* 이 논문은 200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 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뚜렷한 리얼리즘의 산맥"이라 했고, 김종철(1984:95)은 “리얼리즘문학의 전범”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뛰어난 사실주의 작가라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은 요산 소설의 내용이나 주제를 특히 주목하였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 불의에 맞선 강렬한 행동, 가진 자와 권력자의 횡포를 고발하는 저항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는 로만 야콥슨이 지적인 언어의 지시적 기능을 주목한 것이라 하겠다.

로만 야콥슨(1989:54-61)은 언어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로 발신자, 수신자, 전언, 관련 상황, 약호체계, 접촉을 들고, 이 여섯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발신자를 강조할 때 감정 표시적 기능
- 2) 수신자를 강조할 때 명령적 기능
- 3) 전언의 대상을 강조할 때 지시적 기능
- 4) 접촉을 강조할 때 친교적 기능
- 5) 약호체계를 강조할 때 메타 언어적 기능
- 6) 전언 자체를 강조할 때 시적 기능

선행 연구는 특히 지시적 정보 전달적 기능과 감정 표시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지시적 기능과 감정 표시적 기능 속에 시적 기능이 포섭된다. 그것은 문학이 언어를 매체로 삼고, 언어행위는 말의 선택과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1)</sup>

---

1) 야콥슨은 언어행위의 근본적인 배열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선택의 원리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어휘는 등가성, 유사성과 상이성, 동의어와 반의어 등의 원리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이다. 둘째, 결합의 원리가 그것이다. 선택된 어휘는 인접성에 의해 결합된다는 것이다. 주어와 술어의 결합,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결합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2. 언어의 시적 기능은 일상생활 용어가 가지는 지시적 기능, 표현적 기능, 명령적 기능과는 변별되어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문학 작품이 지향하는 목표라 말할 수 있다. 야콥슨도 시적 기능 또는 미적 기능이 시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라고 하거니와, 산문에서 비유나 상징을 동원한 묘사적 표현은 시적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병걸(1972:114-115)은 토착성을 짚게 발산하는 김정한의 소설 언어에 시적 묘사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가리면 아래와 같다.

- (1) 그렇게 많이 모이던 기러기며 오리 등이 간다 온다 말도 없이 훨훨 날아 가기 시작하면, 뒷기미의 하늘에 별안간 아지랑이가 짙어 오고, 모래톱 밭들에는 보리빛이 한결 파릇파릇 놀랄 만큼 싱싱해진다. <뒷기미 나무>
- (2) 거기도 벌써 팽과리와 장고와 기타 소리에 맞춰 어깨며 엉덩이들이 신나게 너울꺽죽거리고, 여기저기서 노랑목청들이 췌지졌다. <굴살이>
- (3) 부리부리한 눈방울부터가 그렇게 보였지만, 성질이 아주 괄괄하고 윗쪽 가르듯 올바른 데가 있었다. <인간단지>

위의 예문에서 (1)은 풍경묘사, (2)는 장면묘사, (3)은 인물묘사이다. (1)에서 ‘파릇파릇’한 보리빛은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풍경을 드러내고, (2)에서 ‘너울꺽죽거리’는 춤 모습은 장면의 흥겨움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3)의 ‘부리부리’한 눈망울은 작중인물의 성격을 암시하는 묘사적 표현이다. 이러한 묘사적 표현들은 풍경, 장면, 인물의 상태와 특성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 선택되고 작품 내적 맥락이나 사회적 맥락에 근거하여 배열된다고 하겠다.

단어 ‘가시다’의 경우를 보자.

- (4) ㄱ. 남 먹은 그릇만 차곡차곡 **가시어** 뒤폐없이 살강에 설겅고 나  
 니... <옥심이>  
 ㄴ. 불목한이는 부리나케 술을 말끔하게 **가시고** 나더니... <묵은  
 자장가>  
 ㄷ. 그의 손자 무덤을 돌아본 뒤에야 비로소 옷가슴을 헤치고 땀  
 을 **가시었다**. <수라도>  
 ㄹ. 나는 청을 **가시다** 말고 빗자루를 든 채 그의 방에 슬쩍 들어  
 가 보잖았겠어요. <그러한 남편>  
 ㅁ. 그래도 침에는 제법 얹전한 새아씨답게 집안이나 **가시고** 반  
 찬거리나 장만하는 것으로... <그러한 남편>  
 ㅂ. 신문지만 수북히 어질어져 있을 뿐 제대로 **가시어지지도** 않  
 는 방이었다. <거적대기>

(4)에 쓰인 ‘가시다’라는 말은 ‘그릇이나 술 따위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ㄱ과 ㄴ의 경우는 일반적 쓰임이다. ㄷ-ㅂ의 경우는 ‘닦다, 쓸다, 청소하다, 정돈하다’ 등 일상적인 단어를 써야 할 자리에 ‘가시다’로 씌으로써 이질적 속성에서 의미의 유사성을 찾아낸 미적 표현의 예라 하겠다.

(1)~(4)에서 보인 예처럼, 김정환의 소설 문장은 경직된 폭로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예술적 기능을 십분 고려하여, 때때로 싱싱하고 생명감이 약동하는 것처럼 미적인 언어구사가 빛나기도 한다. 굳고 강직한 ‘촌스런 문체’지만 씹뿌리처럼 씹을 맛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독자에게 지속적으로 호소력을 갖는다는 김정자(1985:442-443)의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2)</sup>

이 논문은 작품들에 나타나는 많은 순 우리말 어휘들에 관심을 가지

2) 김정자(1985:442-443)에서 <옥심이>의 문학적인 아취를 풍기는 부분을 예로 들기도 하였다. 또 조정래(2002:191-194)도 김정환의 언어감각을 높이 평가하여 문학적 미감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다. 농민의 삶과 정서에 밀착된 세밀한 묘사력을 보이며, 작중인물의 세계에 적합한 방언, 의태어, 의성어 등을 통해 지각을 부추킨다는 것이다.

려 한다.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김정한 작품 속에 대단히 많다.<sup>3)</sup> 장편 역사소설인 <삼별초>를 제외하고 한자어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은 특히 다양한 형용사와 의태어, 인물지칭어를 사용하여 풍경, 장면, 인물을 인상 깊고 생동감 있게 드러낸다. 사물의 특징과 인상, 사물에 대한 작가의 느낌과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들 어휘는 묘사적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김정한의 소설에서 순 우리말 어휘로 된 묘사적 형용사나 묘사적 의태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이를 통해 김정한 소설 언어의 미적 기능성을 암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김정한 소설의 문체를 두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상신(1987:105)이 언어학적 범주를 배제하고 문체연구는 불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언어학과 문학 연구가 경계를 넘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1.3. 이 논문에 올린 자료들은 최근에 발굴된 <사라진 사나이>를 포함하여<sup>4)</sup> 지금까지 알려진 단편소설 41편, 장편소설 1편, 희곡 1편 등 모두 43편의 김정한 소설 전부를 망라하였다.

참고로 작품들을 연대기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1. 그물 1932   | 2. 사하춘 1936        |
| 3. 옥심이 1936  | 4. 향진기 1937        |
| 5. 기로 1938   | 6. 그러한 남편 1939     |
| 7. 낙일홍 1940  | 8. 추산당과 결사사람들 1940 |
| 9. 월광한 1940  | 10. 묵은 자장가 1941    |
| 11. 인가지 1943 | 12. 옥중회갑 1946      |

3) 김정한은 <수라도> 창작 노트에서 “농촌생활에 밀착돼 있는 순수한 우리말들을 되도록 많이 찾아 쓰려고 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홍기삼, 1975: 240)

4) 최미진(2006:397-413) 참조

- |                   |                      |
|-------------------|----------------------|
| 13. 설날 1947       | 14. 병원에서는 1951       |
| 15. 사라진 사나이 1954  | 16. 농촌 세시기 1955      |
| 17. 액년 1956       | 18. 모래톱 이야기 1966     |
| 19. 과정 1967       | 20. 입대 1967          |
| 21. 곶 1968        | 22. 유채 1968          |
| 23. 축생도 1968      | 24. 제3병동 1969        |
| 25. 굴살이 1969      | 26. 수라도 1969         |
| 27. 뒷기미 나루 1969   | 28. 지옥변 1970         |
| 29. 독메 1970       | 30. 인간단지 1970        |
| 31. 실조 1970       | 32. 어둠 속에서 1970      |
| 33. 산거족 1971      | 34. 사뱃재 1971         |
| 35. 산서동 뒷이야기 1971 | 36. 회나뭇골 사람들 1973    |
| 37. 어떤 유서 1975    | 38. 위치 1975          |
| 39. 교수와 모래무지 1976 | 40.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1977 |
| 41. 거적대기 1983     | 42. 슬픈 해후 1985       |
| 43. 삼별초 1977 (장편) |                      |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어휘 자료들은 고등학생 수준 이상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현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지 않지만 살려 써야 할 순 우리말을 중심으로 가려내었다.<sup>5)</sup> 어휘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과 논증을 하지 아니하고, 자료 제시적 성격을 띤다. 이런 자료를 통해 문학과 어학 쪽 후학들의 연구가 깊어져 김정한의 리얼리즘 소설은 순 우리말의 놀라운 성찬 위에 이루어진 미적 성과물임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

5) 김정한 소설 속의 어휘 목록은 앞으로 나올 김봉모(2006)의 『김정한 소설 어휘 사전』을 참고 바람.

## II. 본론

묘사란 대상의 구체적인 모양과 빛깔, 대상의 특징과 인상, 그리고 대상에 대한 작가의 감각적인 느낌과 태도 등을 생생하게 그려 보이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 대상들이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비유, 과장, 상징과 시늉말들을 사용해 응답하는 것이 묘사이다.

묘사로서의 어휘 가운데 형용사<sup>6)</sup>는 김정한 소설 언어의 미적 기능을 강화하는 품사이다. 접미사류가 붙은 어휘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제시한다.

### 1. 접미 파생 어휘

김정한 작품 속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용언 어휘로 ‘-스럽다’, ‘-거리다’ 그리고 ‘-하다’ 따위가 포함된다.

#### 1) ‘-스럽다’ 어휘

‘-스럽다’라는 접미사는 명사 따위들에 붙어서 형용사를 만드는 ‘-그럴 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모양, 존재의 어떠한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비유적 요소를 안고 있고, 타 어휘의 의미 영역으로 추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단어들이다. 또한 형용사는 지적 언어라기보다는 정적 언어에 가까운데, 이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적 언어는 어떠한 객관적인 사물을 지시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징이다.

그러므로 ‘-스럽다’류의 어휘들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이라, 개인의 상상력이 동원된 어휘들이다.

---

6) 글쓴이는 문법 용어를 순 우리말을 주로 쓰지만, 문학 연구자들이 다소 저항을 느낄 듯하여 이 논문에서는 한자어로 쓴다.

- (5) ㄱ. 무슨 짐덩어리처럼 다른 **거추장스런** 짐짝들과 함께 마구 배에 실렸지요.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 나. 이러한 **거추장스런** 일이 다 끝난 뒤에야 겨우 기우 불공이 시작되었다. <사하촌>
  
- (6) ㄱ. 뒤에서는 **걸쌘스런** 위협 소리와 함께 연방 돌덩이가 날아 닥쳤다. <옥심이>
- 나. 수남이 어머니의 **걸쌘스런** 목소리가 갑자기 귀청을 들쭉셨다. <지옥변>

(5) ‘거추장스런’, (6) ‘걸쌘스런’은 이 문장에서 수식어로 쓰였으므로 없어도 문맥은 통한다. 원래 수식어는 수의적 요소이나 그것이 단순한 장식어나 아니면 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쓴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에서 ‘거추장스런’이란 말을 넣음으로써 ‘짐짝’이나 ‘일’이 주체하기가 어렵도록 다루기가 거북하다는 뜻을 묘사하는 데 성공했다. (6)에서도 ‘소리’나 ‘목소리’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지려 하지 않고 억척스런 데가 있음을 가미함으로써 뜻을 강화하였다.

김정한 소설에 나타나는 ‘-스럽다’ 어휘 중 묘사적 효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표현한 어휘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7) ㄱ. 거드름스럽다 <농촌 세시기>
- 나. 걸쌘스럽다 <옥심이>, <지옥변>
- 다. 공척스럽다 <뒷기미 나무>
- 르. 구첩스럽다 <기로>, <묵은 자장가>
- ㅁ. 귀꿈스럽다 <꿈>
- ㅂ. 귀첩스럽다 <꿈>
- 사. 그악스럽다 <모래톱 이야기>
  
- (8) ㄱ. 테통스럽다 <사라진 사나이>
- 나. 둔팍스럽다 <낙일홍>, <거적대기>
- 다. 뒤넘스럽다 <추산당과 걸사람들>, <그러한 남편>, <꿈>.



- <농촌 세시기>, <삼별초>
- 르. 뒤통스럽다 <추산당과 결사사람들>, <낙일홍>, <모래톱 이야기>, <사뱃재>,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삼별초>
- (9) ㄱ. 물강스럽다 <기로>, <항진기>, <수라도>, <인간단지>, <산서동 뒷이야기>, <추산당과 결사사람들>, <옥심이>, <사하촌>, <묵은 자장가>
- 나. 무작스럽다 <액년>
- (10) ㄱ. 불통스럽다 <어둠 속에서>, <사하촌>
- (11) ㄱ. 사사스럽다 <축생도>
- 나. 시통스럽다 <지옥변>, <어둠 속에서>
- 다. 신통스럽다 <낙일홍>, <그러한 남편>, <옥심이>, <어둠 속에서>, <농촌 세시기>
- 르. 실쌈스럽다 <굴살이>
- (12) ㄱ. 야경스럽다 <뒷기미 나루> <지옥변> <거적대기> <농촌 세시기>
- 나. 엄전스럽다 <묵은 자장가>
- (13) ㄱ. 자갈스럽다 <지옥변> <독메> <삼별초>
- 나. 잔상스럽다 <어둠속에서> <삼별초>
- 다. 주체스럽다 <옥심이>
- (14) ㄱ. 착살스럽다 <그러한 남편>

(7)~(14)에 올린 것은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지만 살려 쓸 만한 말들로 모두 묘사성 어휘에 포함할 수 있다.<sup>7)</sup>

7) 이상신은 어휘적 특성을 검토하면서 형용사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 대상을 「사하촌」에 제한하고 특히 색채 이미지를 주목한 결과일 것이다.(이상신: 109-114)

2) ‘-하다’ 어휘

접미사 ‘-하다’는 명사, 부사 따위의 어근에 붙어 용언을 만드는 것이다. 그 중에서 형용사를 생성하는 것은 앞의 ‘-스럽다’ 따위와 비슷한 뜻을 가지며 그 기능도 유사하다. 이런 형용사들은 사물의 속성과 상태를 나타내는데 모두 감각적이든지 정의적(情意的)이며 다분히 심리적이다.

(15) 고요하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신선하다, 미지근하다

(16) 귀하다, 천하다, 씩씩하다, 실하다, 약하다

(15)는 감각적인 말이며 (16)은 정의적인 말인데, 이들 말들은 모두 말 할이의 주관이 어느 정도 보태어져 표현되는 말이다. 특히 문학 작품에 사용되는 경우는 작가의 주관에 좌우되는 말이다. 김정한 소설에 쓰인 ‘-하다’류 형용사는 대개 비유적 요소를 머금고 있고, 또 시늉말 같은 부사어에서 생성된 것이 많으므로 이런 말들도 다분히 묘사적이다.

김정한 소설에 쓰인 ‘-하다’류 형용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7) ㄱ. 가든하다 <목은 자장가>

ㄴ. 가뜩하다 <옥중회갑>

ㄷ. 가슴츠레하다 <기로>

ㄹ. 갈죽스름하다 <제3병동>

ㅁ. 갈죽하다 <기로>

ㅂ. 갈쭈하다 <과정>

ㅅ. 거무테데하다 <사하촌>, <굴살이>

ㅇ. 거무충충하다 <액년>

ㅈ. 거머무트름하다 <옥심이>

ㅊ. 격실격실하다 <월광한>, <항진기>

ㅋ. 경성드뭇하다 <기로>, <그러한 남편>, <설날>, <슬픈 해

후>, <삼별초>

ㄷ. 구중중하다 <회나뭇골 사람들>

표. 끄느름하다 <독메>

ㅎ. 끝끝하다 <그러한 남편>

(18) ㄱ. 날큰날큰하다 <낙일홍>

ㄴ. 납대대하다 <거적대기>

ㄷ. 냉송하다 <지옥변>

ㄹ. 너글너글하다 <그러한 남편>

ㅁ. 너슬너슬하다 <곰>

ㅂ. 놀놀하다 <농촌 세시기>

ㅅ. 누긋하다 <항진기>

ㅇ. 늘썩늘썩하다 <지옥변>

(19) ㄱ. 데데하다 <유채>

ㄴ. 두두룩하다 <농촌 세시기>

ㄷ. 둔박하다 <농촌 세시기>

ㄹ. 따들씩하다 <낙일홍>, <제3병동>, <삼별초>

ㅁ. 팔따막하다 <농촌 세시기>

ㅂ. 떠름하다 <농촌 세시기>, <지옥변>, <기로>, <사하춘>, <삼별초>

ㅅ. 똑똑하다 <농촌 세시기>

ㅇ. 뜨막하다 <회나뭇골 사람들>

(20) ㄱ. 매련하다 <회나뭇골 사람들>

ㄴ. 맨송맨송하다 <독메>

ㄷ. 메식하다 <농촌 세시기>

(21) ㄱ. 부루통하다 <항진기>

ㄴ. 부수수하다 <과정>

ㄷ. 부유스름하다 <삼별초>

(22) ㄱ. 설명하다 <어떤 유서>, <제3병동>, <농촌 세시기>

- ㄴ. 소연하다 <삼별초>
- ㄷ. 소조하다 <설날>
- ㄹ. 수긱하다 <농촌 세시기>
- ㅁ. 수럭수럭하다 <농촌 세시기>
- ㅂ. 숙웃하다 <사라진 사나이>
- ㅅ. 숙지글하다 <지옥변>
- ㅇ. 시금텃텃하다 <사하촌>
- ㅈ. 시난고난하다 <지옥변>, <사라진 사나이>
- ㅊ. 시드룩부드룩하다 <유채>
- ㅋ. 시똥하다 <농촌 세시기>
- ㅌ. 시부룩하다 <낙일홍>
- ㅍ. 시뻘하다 <굴살이>, <사하촌>
- ㅎ. 시치름하다 <사밭재>
- ㄷ. 시똥하다 <기로>, <항진기>, <농촌 세시기>, <사라진 사나이>
- ㅅ. 싹똥머룩하다 <산거죽>, <거적대기>, <농촌 세시기>
- ㅇ. 심드렁하다 <산거죽>
- ㅋ. 씩그레하다 <삼별초>

(23) ㄱ. 양바름하다 <뒷기미 나무>, <꿈>, <기로>, <월광한>, <농촌 세시기>

- ㄴ. 약시약시하다 <낙일홍>
- ㄷ. 약차하다 <회나뭇골 사람들>, <농촌 세시기>, <삼별초>
- ㄹ. 어긱하다 <사하촌>
- ㅁ. 어둔하다 <삼별초>
- ㅂ. 어리똥하다 <산거죽>
- ㅅ. 어리무던하다 <액년>, <모래톱 이야기>, <굴살이>
- ㅇ. 어리뻥뻥하다 <낙일홍>
- ㅈ. 어마똥하다 <낙일홍>, <거적대기>
- ㅊ. 어송그러하다 <낙일홍>
- ㅋ. 어스레하다 <추산당과 결사랍들>
- ㅌ. 어웅하다 <지옥변>
- ㅍ. 억실억실하다 <삼별초>

- ㅎ. 얼씬하다 <곰>
  - ㄷ. 임부렁하다 <낙일홍> , <어떤 유서>
  - ㄸ. 여짓여짓하다 <기로>
  - ㄱ. 왁달박달하다 <기로>
  - ㅋ. 우꾼하다 <인간단지>
  - ㄴ. 우두망찰하다 <굴살이>, <지옥변>, <어둠 속에서>, <산거족>
  - ㄷ. 우리우리하다 <어둠 속에서>
  - ㄹ. 울가망하다 <옥심이>, <사하촌>, <곰>, <유채>, <농촌 세시기>, <삼별초>
  - ㅁ. 울뚝하다 <거적대기>
  - ㄴ. 울울하다 <기로>
- (24) ㄱ. 짐직하다 <그리한 남편>
- ㄴ. 줄느런하다 <수라도>, <지옥변>
  - ㄷ. 지르통하다 <그리한 남편>, <항진기>, <낙일홍>, <농촌 세시기>
  - ㄹ. 지글하다 <회나뭇골 사람들>, <묵은 자장가>
  - ㅁ. 찌부드르하다 <묵은 자장가>
  - ㅂ. 찡찡하다 <그리한 남편>, <액년>, <사라진 사나이>
- (25) ㄱ. 추레하다 <굴살이>
- ㄴ. 치면하다 <항진기>, <슬픈 해후>, <곰>, <유채>, <제3병동>, <뒷기 미 나무>, <독메>, <어떤 유서>
- (26) ㄱ. 강강하다 <산거족>, <과정>, <축생도>
- ㄴ. 쾡하다 <수라도>, <어떤 유서>, <삼별초>
- (27) 타박타박하다 <독메>
- (28) ㄱ. 팔초하다 <항진기>
- ㄴ. 푼더분하다 <인간단지>, <사뱃재>, <산서동 뒷이야기>, <옥심이>, <월광한>

- (29) ㄱ. 할끔하다 <액년>, <기로>  
 ㄴ. 해말쭉하다 <산서동 뒷이야기>, <옥심이>, <월광한>, <기로>  
 ㄷ. 허여말쭉하다 <과정>  
 ㄹ. 허출하다 <사하촌>, <기로>  
 ㄹ. 헐쩍하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ㅂ. 헐하다 <항진기>  
 ㅅ. 헤발쭉하다 <인간단지>  
 ㅇ. 혼흔하다 <기로>, <농촌 세시기>  
 ㅈ. 휘휘하다 <회나뭇골 사람들>, <제3병동>, <굴살이>, <항진기>, <농촌 세시기>  
 ㅊ. 횡하다 <기로>  
 ㅋ. 흘끔하다 <곰>  
 ㅌ. 희번드르하다 <수라도>  
 ㅍ. 희뵈하다 <항진기>, <독메>, <인간단지>

(17)~(29)에 보인 예들은 모두 부사 또는 부사성 어휘에 ‘-하다’가 붙어 생성된 형용사들이다.<sup>8)</sup> 모두 일상생활 용어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단어들인데,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것들이라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정밀하게 묘사한 것이라 할 만하다.

김정한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하다’가 붙은 동사는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작가가 작중인물의 행동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선행 평가와 다른 결과이다. 김정한은 관념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행한다기보다 그런 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묘사적 형용사로써 표현하는 데 더 주력한 것이다.

### 3) ‘-거리다’ 어휘

‘-거리다’ 류 어휘는 김정한 소설에 비교적 많이 쓰인다. ‘-거리다’는

---

8)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단어까지 합한다면 김정한 소설에 나타나는 ‘-하다’류 형용사는 그 수가 매우 많다.

시늉말 따위의 부사다운 어근에 붙어 그 움직임이나 소리 따위가 되풀이됨을 나타낸다. 이런 어휘의 특색은 어근이 부사성이어서 수식의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되풀이되는 행위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뜻보다는 다른 사람(말할이)이 그러한 행위의 모양을 관찰하는 의미의 성격이 더 짙다. 또 이렇게 파생된 어휘는 대개 자동사이므로 형용사의 성격과도 매우 가깝다.

(30) ㄱ. 얼굴이 **실룩거린다**.

ㄴ. 철수가 얼굴을 **실룩거린다**.

(30)에서 ㄱ은 자동사이고 ㄴ은 타동사이다. 타동사로 쓰일 때는 행위자가 능동적으로 하는 반복 행위를 나타내지만, 자동사로 쓰이면 행위자의 행위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되는 상태를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9)</sup> 그러므로 (35) ㄱ은 ‘꽃이 곱다’ 또는 ‘앞밭이 길다’ 등에서 볼 수 있는, 주체의 상태를 정서적·심리적 상태로 나타내는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 움직임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김정한 소설에 보이는 ‘-거린다’가 쓰인 예를 보인다.

(31) ㄱ. 가르랑거리다 <제3병동>, <지옥변>

ㄴ. 갈그랑거리다 <곰>

ㄷ. 갈근적거리다 <그려한 남편>: 타동사로 쓰임

ㄹ. 고시랑거리다 <독메>

ㅁ. 구두덜거리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어떤 유서>, <수라도>, <굴살이>, <인간단지>, <산거죽>, <사뱃재>, <낙일홍>, <위치>, <농촌 세시기>, <삼별초>

9) ‘산이 보이다’, ‘밥이 잘 먹히다’ 따위에 쓰인 피동사는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피동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피동사 따위도 동사의 분류에 포함하기는 하나 상태의 성격이 짙어 ‘-거린다’ 류의 동사와 함께 상태동사와 동작동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ㄷ. 꺾죽거리다 <굴살이>
- ㄸ. 께질거리다 <낙일홍>
- ㄹ. 꺾짜거리다 <어둠 속에서>

(32) ㄱ. 너울꺾죽거리다 <굴살이>  
    나. 넘성거리다 <농촌 세시기>: 타동사로 쓰임

(33) ㄱ. 더떨거리다 <곰>  
    나. 뒤룩거리다 <굴살이>  
    ㄷ. 득시글거리다 <교수와 모래무지>  
    ㄹ. 따듬작거리다 <지옥변>: 타동사로 쓰임  
    ㅁ. 떠죽거리다 <독메>, <곰>, <거적대기> / <옥심이>에서는  
        타동사로 쓰임  
    ㅂ. 뜸직거리다 <독메>

(34) ㄱ. 몽그적거리다 <사뱃재>  
    나. 몽클거리다 <수라도> / <낙일홍>에서는 타동사로 쓰임

(35) ㄱ. 바르작거리다 <제3병동>  
    나. 불뚝거리다 <굴살이>, <사뱃재>  
    ㄷ. 비죽거리다 <굴살이>  
    ㄹ. 비치적거리다 <곰>  
    ㅁ. 뺱글거리다 <지옥변>

(36) ㄱ. 수선거리다 <유채>: 타동사로 쓰임  
    나. 스멀거리다 <항진기>

(37) ㄱ. 아드등거리다 <기로>, <그러한 남편>  
    나. 아장거리다 <슬픈 해후>  
    ㄷ. 어른거리다 <설날>  
    ㄹ. 어름거리다 <낙일홍>, <옥심이>, <모래톱 이야기>  
    ㅁ. 어릿거리다 <지옥변>  
    ㅂ. 웅알거리다 <인간단지>, <사뱃재>



- ㅅ. 올랑거리다 <뒤틀기미 나무>: 타동사로 쓰임
- ㅇ. 움썰거리다 <삼별초>

- (38) ㄱ. 종종거리다 <사하촌>: 타동사로 쓰임
- ㄴ. 직신거리다 <지옥변>, <기로>
- ㄷ. 질금거리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축생도>
- ㄹ. 질벽거리다 <뒤틀기미 나무>
- ㅁ. 찌부럭거리다 <낙일홍>

- (39) ㄱ. 터덕거리다 <옥십이>, <그물>
- ㄴ. 터덩거리다 <사밭재>

- (40) ㄱ. 편둥거리다 <독메>
- ㄴ. 폭삭거리다 <슬픈 해후>

- (41) ㄱ. 휘뚝거리다 <사밭재>
- ㄴ. 흥똥거리다 <낙일홍>

(31)~(41)에 보인 예들에서 ‘갈근적거리다, 넘성거리다, 수선거리다, 올랑거리다, 종종거리다’ 따위 말을 제외하면 모두 자동사로 쓰였다. 타동사로 쓰인 말들도 좀 더 깊이 음미하면, 상태동사에 가까운 묘사의 성격을 지닌다.

## 2. 다양한 의태어

의태어는 의성어와 더불어 상징어에 속한다. 상징어는 그 언어기호가 가진 뜻이 실제 소리나 모양이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말이다. 우리말에는 이런 상징어가 매우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의태어가 의성어보다 훨씬 다양하다.

의태법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나, 사람이나 동물의 몸짓, 또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비유의 일종이다. 의태법은

음상으로는, 관찰자의 관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므로 문학작품 속에 쓰인다면 이것도 묘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타내는 대상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여 표현해야 하므로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져야 한다.

의태어는 그 꼴을 나타내는 해당 용언과 공존관계와 수식관계를 이루는 것이 원칙이다.<sup>10)</sup>

- (42) ㄱ. 갈기갈기 — 찢다
- 나. 느릿느릿 — 걷다
- ㄷ. 뱅글뱅글 — 돌다
- ㄹ. 무럭무럭 — 자라다
- ㅁ. 생글생글 — 웃다

(42)의 호응관계는 일반적인 쓰임이지만 다음 예를 보자.

(43)그 여자가 **덩실덩실/당실당실** 춤춘다.

(44)사람이 **둥실둥실/동실동실** 떠간다.

(43)의 ‘덩실덩실’과 ‘당실당실’, (44)의 ‘둥실둥실’, ‘동실동실’은 음상의 차이에 따른 같은 말이니, 관찰자의 관념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러나 ‘덩실덩실’과 ‘둥실둥실’은 원래는 다른 뜻의 말이지만 움직임의 유사성과 발음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쓰이기도 한다. 이런 어휘는 문학에서 대체언어를 활용한 것이며, 또 언어의 미적 기능을 충족한다. 더욱 ‘춤춘다’는 말에 ‘자꾸 부드럽게 나부끼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인 ‘나풀나풀’로 교체하기도 한다.

---

10) 이러한 공존관계에 대하여는 박선자(1996:269) 및 최동진(1998:10-12) 참조

- (45) ㄱ. 그 여자가 **나풀나풀/너풀너풀** 춤춘다.  
 ㄴ. 그 여자가 **나불나불/너불너불** 춤춘다

(45)ㄱ, ㄴ의 ‘나풀나풀’, ‘나불나불’ 따위는 음상에 따라 큰말, 작은말, 거센말의 차이가 있다. 이 말도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춤춘다’라는 말에 쓴다면 비유가 성립되며 묘사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김정한 소설 속에는 다양한 의태어가 보인다.<sup>11)</sup>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어떤 동작이나 모습을 세밀히 묘사하고 지각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아래에 일상 생활어에서 쉬 발견하지 못하는 목록만 제시한다.

(46) 격실격실	경중경중	그렁성저렁성
그렁저렁	날큰날큰	너글너글
너슬너슬	널름널름	노글노글
녹진녹진	느실난실	늘썩늘썩
늪실늪실	능글능글	더벅더벅
더떨더떨	덤뻑덤뻑	도톨도톨
뜨끔뜨끔	모짜모짜	물덤뭉술덤뭉
물컹물컹	몽그적몽그적	몽긱몽긱
바둥바둥	바드둥바드둥	반들반들
부석부석	불경불경	비실비실
비죽비죽	비쭈비쭈	생개망개
서걱서걱	송알송알	수럭수럭
스멀스멀	시드룩부드룩	싱둥싱둥
썰레썰레	쓰락쓰락	씩둑씩둑
아근아근	앙잘앙잘	야불야불
어름어름	어슷비슷	올막줄막
웅기웅기	우둔우둔	우뚝우뚝

11) 김길수(1999:64-70)는 김정한 소설 문장의 표현양상을 검토하면서 음성 상징어 가운데 특히 의태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어휘적 품사적 측면에서 어사용법을 고찰한 김인배(1980:27-46)가 의성어, 의태어도 용언을 수식하여 뜻을 강화한다고 해석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우리우리	우묵우묵	우줄우줄
울근불근	지근덕지근덕	지분지분
쫓작쫓작	타박타박	터덕터덕
편둥편둥	푸덕푸덕	푸둥푸둥
푸푸	한땡한땡	할끔할끔
할끗할끗	허덕허덕	허룽허룽
헤실헤실	휘죽휘죽	휘휘
휘뚝휘뚝	호늘호늘	홀금홀금
홍똥홍똥	희뚝희뚝	

### 3. 말맛(뉘앙스) 차이 묘사 어휘

미묘한 말맛 차이를 구사한 듯한 어휘들이 많이 보인다. ‘길다’에서 ‘길쭉하다’라는 말이 파생하는데 ‘길쭉하다’의 말맛 차이를 나타내는 말로 ‘길쭉스름하다, 길쭉막하다, 길쭉하다, 길쭉하다, 길차다’ 등의 말이 있고, 또 그 작은말로서 ‘갈쭉하다, 갈쭉스름하다, 갈쭉막하다, 갈쭉하다, 갈쭉하다’ 등이 발달돼 있다. 이러한 말들의 선택은 말할이 또는 작가의 섬세한 감응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 (47) ㄱ. 갈쭉하다: 들기 쉬우라고 두 귀에 달아 둔 **갈쭉한** 나무손잡이를 노려보던 은파의 눈에는 별안간 구슬 같은 눈물이 고였다.  
 <기로>
- ㄴ. 갈쭉스름하다: ~ **갈쭉스름한** 얼굴이 닳았고, 심지어는 손에 살이 빠진 것까지 꼭 닳았다. <제3병동>
- ㄷ. 갈쭉하다: 가로 **갈쭉하게** 뚫어진 감시구에 딱부리의 두 개의 눈알이 와서 박힌다. <과정>

(47)의 예들은 김정한 작품 속에 달리 표현된 것인데, 이러한 어휘 구사는 표현의 기교이기도 하고, 묘사의 묘를 살린 미적인 어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말맛(뉘앙스)의 차이를 표현한 듯한 어휘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48) ㄱ. 가슴츠레하다 <기로>  
 ㄴ. 가우듬하다 <뒷기미 나루>  
 ㄷ. 거무데데하다 <사하춘>, <굴살이>  
 ㄹ. 거무충충하다 <액년>  
 ㅁ. 경성드뭇하다 <기로>, <그러한 남편>, <설날>, <슬픈 해 후>, <삼별초>  
 ㅂ. 구중중하다 <회나뭇골 사람들>  
 ㅅ. 끄느름하다 <독메>  
 ㅇ. 납대대하다 <거적대기>  
 ㅈ. 따들씩하다 <낙일홍>, <제3병동>, <삼별초>  
 ㅊ. 딸딸막하다 <농촌 세시기>  
 ㅋ. 딱별나다 <회나뭇골 사람들>  
 ㅌ. 숙더분하다 <지옥변>  
 ㅍ. 숙웃하다 <사라진 사나이>  
 ㅎ. 숙지근하다 <지옥변>  
 ㅏ. 싹똥머룩하다 <산거죽>, <거적대기>, <농촌 세시기>  
 ㅑ. 심드렁하다 <산거죽>  
 ㅓ. 양바툼하다 <뒷기미 나루>, <곰>, <기로>, <월광한>, <농촌 세시기>  
 ㅕ. 어리뚝하다 <산거죽>  
 ㅗ. 어리무던하다 <액년>, <모래톱 이야기>, <굴살이>  
 ㅛ. 어리뻥뻥하다 <낙일홍>  
 ㅜ. 어마뚝하다 <낙일홍>, <거적대기>  
 ㅠ. 어송그러하다 <낙일홍>  
 ㅡ. 어스레하다 <추산당과 결사사람들>  
 ㅣ. 엄부렁하다 <낙일홍>, <어떤 유서>, <기로>

#### 4. 기타 형용사

그 외에 다음과 같은 파생이나 합성형용사가 쓰였다.<sup>12)</sup>

12)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순우리말 동사로는 ‘계면돌다, 고추았다, 굶닐다, 께지르다, 다불다, 달뜨다, 덤싸다, 뒤설레다, 뒤흔들리다, 들었다, 바비치다, 벌디

- (49) ㄱ. 검질기다 <산거죽>, <산서동 뒷이야기>  
 ㄴ. 곱살긱다 <독메>  
 ㄷ. 구기박지르다 <수라도>  
 ㄹ. 길차다 <모래톱 이야기>, <뒷기미 나루>, <어둠 속에서>  
 ㅁ. 깔축없다 <지옥변>, <삼별초>  
 ㅂ. 반지빠르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그러한 남편>  
 ㅅ. 숙부드럽다 <독메>  
 ㅇ. 시쁘다 <기로>, <굴살이>, <제3병동>, <산서동 옛이야기>  
 ㅈ. 실답다 <입대>  
 ㅊ. 안차다 <월광한>  
 ㅋ. 애바르다 <지옥변>  
 ㅌ. 어기차다 <독메>, <기로>  
 ㅍ. 얼맞다 <묵은 자장가>  
 ㅎ. 칙살맞다 <뒷기미 나루>  
 ㅊ. 험거롭다 <굴살이>, <삼별초>

(49)에 쓰인 예는 일상생활어로는 잘 쓰이지 않는 형용사들로, 이들을 적소에 표현함으로써 단순어보다 더 오묘한 묘사의 묘를 살린다.

- (50) ㄱ. 고스러지다 <항진기>, <제3병동>  
 ㄴ. 다기지다 <삼별초>  
 ㄷ. 다라지다 <옥심이>, <월광한>, <낙일홍>, <묵은 자장가>, <농촌 세시기>  
 ㄹ. 되알지다 <회나뭇골 사람들>  
 ㅁ. 무덕지다 <낙일홍>, <교수와 모래무지>, <추산당과 결사관들>, <항진기>, <지옥변>, <꿈>, <기로>, <위치>, <수라도>, <어둠 속에서>, <사뱃재>, <묵은 자장가>, <삼별초>  
 ㅂ. 살팍지다 <인간단지>  
 ㅅ. 암광지다 <항진기>

---

디다, 비루먹다, 뼈물다, 이치다, 저름나다, 홀뎨이다, 홀치다, 흠빨다' 등이 보인다. 이들은 자동사가 대부분인데 역시 미적 기능을 가진다.

- 오. 앵돌아지다 <그러한 남편>
- 즈. 응둥고라지다 <병원에서는>
- 츠. 잣추려지다 <항진기>

(50)의 예들은 파생접사 ‘-지다’가 붙은 피동사들인데, 이들도 앞에서 본 ‘-거리다’ 류와 마찬가지로 동작성보다는 상태성이 더 강한 묘사 어휘들이다.

### 5. 인간 특성 지칭어(별명)

사람의 성격이나 행태에 따라 그 명명이 다양한데, 이것이 김정한 소설에 직유와 은유로 적절히 나타난다.

- (51)ㄱ. 몽똥한 개발칼에 어울리지 않게 **가납사니** 같은 그녀의 입이 대중없이 이렇게 시부렁거렸다. <지옥변>
- ㄴ. 또 그보다 더한 멸시를 해도 허하사는 늘 **물신선** 같이 싱그레 웃기만 했다. <꿈>

(51)ㄱ의 ‘가납사니’는 ‘되잖은 소리로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사람’을 일컫는데 등장인물인 ‘주인이주머니’의 성격을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다.

(51)ㄴ의 ‘물신선’은 ‘좋거나 언짢은 말을 듣고도 기뻐하거나 성낼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주인공 ‘허하사’의 성격에 딱 맞는 비유이다.

사람의 성격이나 행태를 나타내는 지칭어(일종의 별명)가 작품 속의 등장인물에 비유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52)지칭어와 비유 대상 |        |
| 가납사니 <지옥변>     | 주인이주머니 |
| 가린주머니 <항진기>    | 칠촌 아저씨 |
| 가살이 <옥심이>      | 옥심이    |
| 각다귀 <지옥변>      | 거간꾼    |

거위영장 <회나뭇골 사람들>	박노인 아들
계명위리 <지옥변>	불량계집애
구들더께 <인간단지>	할아버지
구들직장 <삼별초>	할머니, 할아버지
넓적이 <사뱃재>	젊은 순사
노박이 <항진기>	두호
논다니 <기로>	늙은 어머니
<월광한>	며느리
눈딱부리 <뫼기미 나루>	징용 간 아들 기다리는 노인
더병이 <지옥변>	불량소년
두루춘풍 <그리한 남편>	사람들
떼관음보살 <그리한 남편>	외상값 받으러 오는 사람
만무방 <항진기>	두호
<사하촌>	보광리 절 사람들
<옥심이>	옥심이
망석중이 <항진기>	칠촌 아저씨
<뫼기미 나루>	노인들
<낙일홍>	지방 양반
무룽태 <도메>	강노인
무지렁이 <독메>	시골 사람
물신선 <꿈>	허하사
<축생도>	시아버지
<지옥변>	아버지
바람덩이 <실조>	바람난 아이들
반거총이 <수라도>	막내아들
반편이 <회나뭇골 사람들>	작은 선부
발록구니 <옥심이>	안심장
벌떼춘 <그리한 남편>	아내
부라퀴 <축생도>	분통이
시러배아들 <사뱃재>	입대 지망자
<어떤 유서>	민족 주체 부르짖는 사람
<어떤 유서>	농지거리하는 사람들
안달뱅이 <그리한 남편>	남편



어정뱅이 <항진기>	두호 형 태호
어정잡이 <기로>	두호와 은과
억척보두 <설날>	초출이
<항진기>	두호
<축생도>	분통이
<산서동 뒷이야기>	나미오 아버지
<모래톱 이야기>	홍수 구경하는 사람
<독메>	점이
<사라진 사나이>	청년 화가
얼뜨기 <사밭재>	송노인
<그러한 남편>	남편
<교수와 모래무지>	이교수
<월광한>	나
웅천 <그러한 남편>	아내
<기로>	남편
줄때기 <지옥변>	불량소년
천더기 <위치>	식민지 사람들
<제3병동>	어머니와 딸
청맹과니 <유채>	허생원
합바지 <입대>	입대 장정들
허름숭이 <옥심이>	안심장
혈령이 <사밭재>	순사 술 받아먹는 학도병
휘쟁이 <위치>	일본 순사
<회나뭇골 사람들>	박면장
희광이 <뒷기미 나무>	속득이를 덮치려는 사내

위에 올린 인간 특성 지칭어들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적절하게 비유함으로써 묘사적 성격을 띤다. 이는 별명을 나타내는 어휘를 잘 활용한 것이며, 당대의 사회역사적 현실, 농촌 농민이라는 외적 인과관계에 근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한 소설속의 묘사적 어휘를 살펴보았다. 김정한 소설이 경직된 폭로로 일관한 것만이 아니라, 언어의 미적(예술적) 기능을 십분 고려하여, 아름다운 순 우리말 어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소설언어의 시적기능을 완수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김정한 소설에는 ‘-스럽다’, ‘-하다’, ‘-거리다’ 따위가 붙은 접미파생 어휘가 많이 쓰인다. 이들 말들은 형용사 또는 형용사스런 자동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정적언어로서 비유적 요소를 안고 있고, 작가의 상상에 의해 객관적 사실을 암시하고 느끼게 하는 묘사어휘이다. ‘-스럽다’ 류의 어휘들이 관형어로 쓰이면 단순한 수식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쓰였다.

‘-하다’ 류 형용사 어휘들이 매우 많이 쓰이어 감각적이며 정의적인 느낌을 주어 비유적 요소를 머금고 있다. 특히 시늉말 같은 부사에서 생성된 것이 많은데 이들은 다분히 묘사적이다.

‘-거리다’ 류 어휘들도 많이 쓰인다. 대부분이 시늉말 따위의 부사다운 어근에 붙어 생성된다. 이들은 행위자의 행위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되는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형용사의 성격과 매우 가까운 자동사이다. 그러므로 움직임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김정한 소설에는 다양한 의태어가 보인다. 작가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나타내려는 대상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여 의태어로 표현하였다. 가령 ‘춤추다’와 공존하는 말은 ‘덩실덩실’이지만, 원래 다른 뜻의 말인 ‘둥실둥실’과 움직임의 유사성과 발음의 유사성으로 바꾸어 쓴다든지, 관찰자의 관념에 따라 또 다른 뜻의 말인 ‘나풀나풀’로 교체하여 쓴다면 비

유가 성립되며, 어떤 모습을 세밀히 묘사하였다고 하겠다.

3. 미묘한 말맛(뉘앙스) 차이를 구사한 어휘들이 많이 보인다. ‘갈쭉하다’로 쓰면 될 자리에 ‘갈쭉하다, 갈쭉스름하다, 갈쭉하다’ 따위로 바꾸어 씀으로써 미묘한 말맛의 차이를 구사하였다. 이러한 어휘구사는 표현의 기교이기도 하고, 묘사의 묘를 살린 미적인 어휘 선택이라 하겠다.

4. 사람의 성격이나 행태를 나타내는 지칭어(별명)가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는데 이 지칭어가 작품 속의 등장인물에 적절히 비유되어 작품의 묘사적인 문학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하겠다.

주제어 : 김정한 소설, 사실주의, 묘사, 시적기능, 의태어, 말맛차이, 별명

## 참고문헌

- 김길수, 「김정한소설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64-70쪽.
- 김병걸, 「김정한문학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 봄호, 통권 23호, 1972, 113-115쪽.
- 김봉모, 『김정한 소설 어휘 사전』, 세종출판사, 2006.
- 김인배, 「김정한소설의 문체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0, 27-46쪽.
- 김정자, 「주제의식의 강렬성과 삶의 동일성/김정한론」, 김용성·우한용 공편 『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85, 442-443쪽.
- 김종철,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 백낙청 엄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단계 III』, 창작과비평사, 1984, 95쪽.
- 박선자, 『어찌말의 통어의미론』, 세종출판사, 1996, 296쪽.
- 이상신, 「김정한의 문체연구-「사하춘」의 언어학적 문체분석 시론」, 『이화어문』, 9호, 이화여자대학교, 1987, 109-114쪽.
- 조정래, 「현실을 보는 눈과 역사를 보는 눈」, 강진호 편, 『작가론총서 15 김정한』, 새미, 2002, 191-194쪽.
- 최동진, 「시능 풀이씨의 구조와 특성」, 부산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10-12쪽.
- 최미진, 「요산 김정한의 단편, '사라진 사나이」, 문학도시, 통권 64호, 2006, 397-414쪽.
- 홍기삼, 『상황문학론』, 동화출판공사, 1975, 240쪽.
- 로만 야콥슨, 「언어학과 시학」(김태옥 역),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1977, 144-183쪽.

<Abstract>

## Portrayal Vocabulary in Kim Jeonghan's Novels

Kim, Bong-Mo

Kim Jeonghan's novels are recognized as realistic works but they are singularly studded with poetic words.

1. They have the variety of suffix-derivational and mimetic words, which are portrayal and used figuratively.
2. They are enhanced to be more aesthetic with subtle nuances and non-commonness of words.
3. Various epithets make the characters of novel more salient.

Key Words : Kim Jeonghan's novels, portrayal, poetic function, mimetic words, nuance, epithet